

전남도,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 신안군에 판다

도의회 임시회 24만평 매각안 가결... 내년 3월 매각 완료 신안군, 연륙교 개통 염두 '아일랜드 주토피아 사업' 추진

전남도가 민선 5기 박준영 전남지사 재임 당시 야생 동물원 조성을 위해 사들였던 신안 도초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부지를 신안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신안군은 연륙교 개통 일정을 염두에 두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해 전남도의 구상과 유사한 동물 테마파크 사업(아일랜드 주토피아)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구 사파리 아일랜드 토지 매각안을 원안 가결했다.

매각 대상 토지는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87-5 등 254필지로, 80만1657㎡(약 24만여평) 규모다. 전남도는 토지 매각안에서 매각 사유와 방법에 대해 "신

안군에서 도유지인 사파리 아일랜드 부지를 활용해 '아일랜드 주토피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 계획 수립 후 매각을 건의해왔다"며 "전남도 입장에서 2014년 9월 사업 중단 이후 별도 활용 계획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내년 1월까지 감정평가법인 2곳으로 하여 매각 대상 토지 감정 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3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등 소유권 이전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도의회에 밝혔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토지 매각 추정액은 80억원 수준으로 신안군은 전남도에 4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전남도는 토지 매

각 단가 및 분할 상환의 적절성을 정확히 따지고, 신안군 민자 투자 유치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한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2~2014년 총 68억원을 주고 도초도 사파리아일랜드 부지를 매입했다.

2005년 '전남 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중 하나로 야생 동물원 조성 대상지를 신안 도초도로 선정하고,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생동물 복원공원 조성 및 기본구상 용역', '사파리 아일랜드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따른 조치였다.

도초도발매리 일원에 1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파리와 체험·놀이시설, 화조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사파리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 취임 이후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중단 이후

부지를 일부 매각하기도 했다.

신안군은 2019년 사파리아일랜드 사업 부지에 '아일랜드 주토피아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에 매각을 건의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9월 매각 방침을 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토지 매각)에 대한 도의회 승인을 구했다.

신안군은 해당 부지에 아일랜드 주토피아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국비 218억원, 도비 43억원, 군비 174억원, 민간자본 817억원 등 1252억원을 투입해 초식동물 사파리, 뱀공원, 동물테마파크, 숙박지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추진하다 좌초한 사업을 기초단체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신안군은 "오는 2032년이면 사업 부지인 도초도까지 연륙교가 놓일 예정이다. 투자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복 입으면 광주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받는다

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민중 교육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일상생활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복'은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한 전통 복식으로 개량 한복도 포함된다. '공공시설'은

광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문화 시설로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공원 등이 해당한다.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고 지역 기관과 단체, 기업에 한복 착용을 권장하며 한복 착용 장려·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과 단체,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2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용섭 시장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상

코로나·저출산 대책 마련 공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제55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은 여성의 권익 및 지위향상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용섭 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고 대구와 병상 나눔을 연대하는 등 모범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또 여성 권익증진 실현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앞장 선 점과 국가적 위기인 저

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우수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서은숙 부산진구 구청장 등 4명이 공동 수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1959년 창립했으며 전국 65개 단체 5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여성단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속한 재난 대응" 광주 하천관리 일원화 검토

배수문 조작·하천 관리업무 논의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과 시설물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 추진된다.

25일 광주시와 서구 등에 따르면 현재 영산강과 광주천 등 하천 시설물과 각종 부대시설은 국토관리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가 각각 분산해 관리하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국토관리청이 배수문을 유지·관리하지만, 배수문 조작은 자치구에서 담당한다. 체육 시설이나 수목, 기타 시설물은 국토관리청이 허가를 해주면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자치구 내에서도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가, 공원 부지나 수목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담당하는 등 세부 업무별로 담당도 분산됐다.

그러나 올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할 위기를 겪은 이후 이러한 업무 분산이 위급 상황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감했다.

광주시의 경우 광주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지난 20일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 배수문 조작 업무는 국토관리청으로, 하천 시설물 관리 업무는 광주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는 사무 위임 조례에 따라 하천 관리 업무는 자치구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이라며 "광주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지 못할 경우 구청 조직을 개편해 전담 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김치, 온·오프라인

전국 판매시스템 구축

광주시는 "김치타운의 생산시설과 판매 지원 서비스를 이용,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광주 김치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위생적인 제조 시설을 갖추기가 힘들고 제조된 김치를 포장·판매하는 체계가 미흡해 전국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단 11월까지 광주 김치 소평물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또 광주 김치 고유의 특징을 반영한 브랜드 창출, 기능성 포장 용기 개발, 수출용 공동디자인 정립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광주김치자조금협동조합을 통해 3~5명을 선발해 이들이 김치타운의 위생적인 시설을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민의 날 기념 행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 엑스포디지털갤러리에서 '전남,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24회 전라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장·군수와 도와 시군이 한마음이 되는 '전남 희망 이음'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그동안 도민의 날 기념식을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생활체육대축전 개막식과 병행 추진됐으나 2020년부터 독립행사로 개최됐다. <전남도 제공>

속도내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유술·유클리드소프트 등과 42~44번째 업무협약 체결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사업이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이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기업인 ㈜유술, ㈜유클리드소프트, ㈜클로봇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42~44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업별 법인설립 및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술은 IoT 기반 스마트 물관리 플랫폼 개발, 스마트 수압계 및 검침, 원격 누수 감시 시스템 등 상수도 관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전문기업이다.

㈜유클리드소프트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 텍스트마이닝 및 소시오그램 개발, 네트워크 분석과 AI모델링 기반 머신러닝

및 딥러닝 기술자문, CCTV기반 행동인식 및 AI시각지능 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클로봇은 이기종 로봇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관리 솔루션, 다양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한 전문기업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유술은 인공지능 상수도 데이터 분야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유클리드소프트와

㈜클로봇은 인공지능 로봇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각 광주법인 및 사무소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생태계 조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및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정책 자문 ▲인공지능 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연구소 및 지역사무소 신설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